

서기연 2021년 가을학기

부흥사경회

데스티니 | Destiny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요한복음 8장 31-32절 -

■ 일시 | 9월 13일 ~ 15일
■ 시간 | 저녁 7시
■ 고성준 목사님 수원하나교회
■ 서기연 Youtube 송출



서울대기독교인연합
snu_christianunion

교수칼럼

‘진리는 나의 빛’에서 말하는 그 ‘진리’는 무엇인가?: 종교적 진리 vs. 총체적 진리



고린도후서 10장 4-5절
4.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창조사회의 학문과 대학’이라는 책은 여러 분야의 석학들이 현재 대학과 학문을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는 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장희의 교수님은 20세기 들어 학문은 그 본질적 목적을 잃고, 파편화의 길을 걸어왔음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셨습니다.

“20세기 학자들이 저질러놓은 가장 큰 잘못은 우리의 학문을 조각내어 그 누구도 전체 그림을 읽어낼 수 없는 상태에 빠뜨린 일이라 할 수 있다...(지금의) 학문의 주된 목표는 오직 단편적인 사실 구명과 이를 실리적인 상황에 활용하는 일일 뿐...이 그림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정말로 어려운 위험이 닥쳐온다고 할 때 이를 피해 나갈 방도가 없다.”

이어서 장희의 교수님은 현대에 인류가 당면한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은 학문이 본래 가지고 있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즉, 대학은 단편적 사실 규명이나 지금의 활용성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참된 이해를 추구(즉, 진리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진리는 나의 빛’을 모토로 하는 서울대학교의 구성원들이라면, 누구나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말 속에 담긴 ‘진리’란 세상 일부분만을 조명하는 편협한 진리(즉, 부분적 진리)가 아니라, 온 세상 곳곳을 비추는 ‘참된 진리’라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공감과 연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물들의 예로, 우선 편협한 진리라는 용어에 대해 지나치게 거부감을 보이는 시대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주류 사상(혹은 관점)이 되어버린 현시대 속에서 인간의 탐구 활동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진리’는 더는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진리를 탐구하는 일은 과거의 유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시대는 각 개인의 다양한 입장과 생각들의 표현에는 매우 허용적이지만, 각자의 소견을 모으고 통합하며, 이를 토대로 더욱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노력(즉, 진리탐구)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입니다.

‘참된 진리’의 탐구를 가로막는 다른 예로는 가치와 사실 간의 이분법적 사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는 종교나 믿음은 가치의 영역으로, 이성과 학문은 사실의 영역으로 각각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따르면, 공적 영역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논하는 이성과 학문만이 허용되는 반면, 종교나 가치에 관한 논의는 사적 영역으로만 제한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는 그리스도인 중 일부에게도 수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분법적 사고가 사적 영역의 테두리 안에서만끔은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 신앙과 신앙의 표현/나눔을 허용한다는 점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사적 영역 안으로만 제한하게 되면, 믿지 않는 이들과의 의견의 차이를 노출할 위험도 없고, 불편한 마찰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10장 4-5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학문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소명은 공적 차원으로부터 도피하여 개인적 차원

에 머무는 소박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관한 ‘총체적 진리’를 추구하며 이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뿐 아니라 대학의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일관되게 추구해야 할 진리는 ‘총체적 진리’여야 합니다. 더불어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말에서 그 진리는 단편적인 사실 구명과 실제에의 적용에만 관련된 진리여서는 안 됩니다. 그 진리는 개인 안에 갇힌 소박한 ‘종교적 진리’여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나의 빛’에서 그 진리는 실제의 제한된 측면이 아닌 총체적 실재에 관한 온전하고 통합된 진리여야 합니다. 즉, 그 진리는 내가 있는 곳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세상을 밝히는 진리이며, 나의 이웃과 온 세계를 밝혀 줄 ‘총체적 진리’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총체적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피조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적 삶)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옛세 동안 ‘보시기에 좋도록’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피조세계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관리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능력을 통해 피조세계를 ‘잘 이해’하며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잘 이해’한다는 것은 피조세계의 개별적인 존재자들 뿐 아니라 이들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전체적인 관계에 대한 온전히 이해(즉, ‘총체적 진리’에 이름)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 ‘총체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은 일반적인 의미의 진리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다가오는(강요된) 진리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와 진지하게 세상의 참된 것에 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으려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먼저 그들과의 공통의 관심(예: 세상에 대한 이해와 영향)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의 초점이 좁고 지역적일 수 있겠으나, 어떤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대화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작은 조각을 넘어 총체적인 이해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모처럼 바쁜 시간 중 일부를 떼어준 시간이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종교적 믿음을 강요받는 시간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공통 주제에 집중하면서 깊은 탐구의 과정(예: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다음으로 그 원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등)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 분야에서라면 자연에서 발견한 자연법칙, 원리, 사실들에 대한 피상적 이해를 넘어 깊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한 탐구 질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탐구 질문은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볼 수도 있지만, 이미 학문의 선진들이 자연에 관한 본질적 이해를 위해 수행해온 탐구의 역사(혹은 실천 전통) 속에서 위대한 탐구 질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탐구 질문들을 통하여 우리는 탐구의 역사(혹은 실천 전통)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탐구과정과 그 결과의 의미를 인간의 삶과 세상과의 관계로까지 확장하여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의 대화는 좀 더 구체적으로 ‘총체적 진리’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로막고 있는 극단주의(예: 과학주의와 상대주의)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 관점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기존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보다 일관되고 안정된 새로운 관점’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여 년 전, 저는 대학원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에 한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신 후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입학하신 분이라 처음에는 강의를 따라가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학문을 바라보는 그분의 체계적이며 일관된 관점과 열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강예배

서울대기독교인연합 부흥사경회가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후 7시에 유튜브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 SNU Christian Union”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연합예배는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실 예정입니다.

주요 기사 안내

- 1면 교수칼럼 ... 이경호 교수
- 2면 새내기 여름 피크닉 ... 서기연 중앙위 부흥사경회 안내 ... 서기연 중앙위
- 3면 인문대 독후감 이벤트 ... 서재현, 이하은 과기도모임 소식 ... 최민호
- 4-5면 특집
20, 21 학번에게 듣는 대면과 비대면 ... 임예나, 조준서, 최세운, 김서겸, 장영석
- 6면 베리타스 포럼 후기 ... 김재완 학생기자의 글 ... 장동원
- 7면 진나빛 지난 호 돌아보기 ... 이경건
- 8면 2021-1 서기연 중앙예배 스케치

다. 그리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작된 그분과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제 삶뿐 아니라 세상 전체를 포괄하는 안정성과 일관성의 원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안정성과 일관성은 주님의 '총체적 진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새 학기를 만들어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총체적 진리'가 드러나고 주장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웃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새 학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 교수(물리교육과)

새내기 여름 피크닉

믿음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즐기는 "새내기 여름 피크닉"



지난 8월 20일, 서기연이 준비한 "새내기 여름 피크닉" 사역이 주님의 은혜 아래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는 올해 1학기에 입학한 21학번들과 다가올 2학기에 입학할 21.5학번 지체들을 위해 준비되었다. 저녁 8시부터 시작해 약 2시간 정도 진행된 피크닉 행사에는 소속 단체와 단과대를 불문하고 다양한 공동체 소속의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참여했다. 새내기 9명을 포함해 24~25명이 줌(ZOOM)을 통해 소그룹 나눔, 단체게임, 환영 영상 시청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새내기 피크닉은 행사 구성이나 방향 면에서 그동안 매년 겨울 진행해왔던 "서기연 신앙OT"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 그럼에도 여름방학 기간에 새내기 환영을 위한 사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다. 우선 여름학기에 들어오는 기독교인 학생들에게 서기연 공동체를 소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봄학기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 비해 학내 구성원들과 교류할 기회가 적다. 학교 차원에서 주최하는 새내기 오티와 각 과/

반별 환영 행사는 통상적으로 1학기 시작 전이나 학기 초에 실시된다. 그렇기에 여름학기 입학생들은 기준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동기들 혹은 선배들과 친해질 기회가 상당히 적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새내기의 경우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 기독교인 지체들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크리라 생각된다. 이에 올해에는 21.5학번들을 서기연 공동체 행사에 초대하고자 했고 실제로 2명의 21.5학번 새내기들이 피크닉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기존 21학번 새내기들도 신경을 썩여 한다는 점도 논의되었다. 입학한 지 한 학기가 지났지만 21학번들은 실험이나 실습이 있는 일부 수업을 제외하고 모두 비대면으로 강의를 들었다. 시험과 같은 특별한 일정을 제외하면 학교 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학우들을 만날 수 없었다. 또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동아리가 활동을 중단하거나 비대면 활동만을 진행하며 신입생들은 동아리를 통한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기대감 감소로 이어졌다. 기독교인 21학번들도 이러한 심리를 동일하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선교단체나 단과대/과 기독교인 모임에서 21학번 신입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이

를 방증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신앙을 가진 동기 및 선배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절실했다.

이러한 교류의 공간을 알차게 구성하기 위해 결성된 재학생 TF팀은 각자의 역할을 선택하여 행사 일정이 풍성해지도록 최선을 다했다. "대학 속 신앙생활팀"은 새내기 지체들에게 들려줄 간증을 준비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했으며, "조대향전팀"은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을 기획하고 피크닉 당일 게임을 진행하며 분위기를 흥겹게 하는 일을 맡았다. 한편 "선물팀"의 수고는 피크닉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새내기를 위하여 선물에 입힐 캐릭터를 직접 디자인하고 이를 새내기들에게 택배로 보낼 예정이다. 선물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2학기를 맞이해야 할 새내기 지체들이 선배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번 새내기 피크닉도 코로나 거리두기 수칙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되었기에 행사 준비와 소통에 있어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재학생 TF팀의 헌신적인 준비 덕분에 피크닉 참가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쉬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크닉 진행을 총괄한 중앙위원 김하영 자매(자유전공 20)는 "멘토(재학생 참가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해주셔서 새내기들도 점차 참여와 반응이 늘었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비대면이기에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생겨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피크닉을 진행한 소감을 밝혔다. 이번 사역을 통해 서기연 지체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서울대 땅에 이어짐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한다.

서기연 중앙위원단

부흥사경회 안내



이번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서기연 지체들은 "부흥사경회"라는 이름으로 오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예배를 드린다. 서울대의 영적인 회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붙인 '부흥(復興)'과, 말씀을 깊이 배우는 모임인 '사경회(查經會)'라는 용어가 결합된 부흥사경회는 서울대 캠퍼스에서 2000년대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은 비정기적으로 드러졌으나 2019년부터는 매년 2학기 개강예배 시기에 맞추어 드러지게 되었다. 그

렇기에 이러한 정기적인 부흥사경회는 올해로 3회차를 맞게 되므로 비교적 새롭고 신선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예배에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고성준 목사님이다. 목사님께서서는 본교 수학과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셨으며 현재는 수원하나교회의 담임목사님을 맡고 계신다. 학교생활을 먼저 해보신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점에서 서기연 지체들이 갖는 기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목사님께서 이번 사경회에서 "데스티니(Destiny)"라는 주제로 설교하실 예정이다.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32절인데, 해당 성구(聖句)에 담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구절은 서울대의 표어인 "진리는 나의 빛"을 연상하게 한다. 설교를 통해 서울대 기독교인들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재차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부흥사경회는 서울대를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예배라는 점에서 사역을 진행하는 의의가 상당하다. 첫날인 13일(월)은 서기연 학부생들이, 다음날인 14일(화)은 서울대 소속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그리고 마지막 날인 15일(수)은 서울대교회 수요일예배팀이 섬기게 된다. 실로 부흥사경회는 서울대의 다양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한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연합의 장인 것이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며 신앙을 가진 형제·자매들과의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기회는 더욱 귀중하게 다가온다.

비록 이번 부흥사경회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드러질 예정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 선포될 복음의 능력이 서울대에 울려 퍼질 때 회복과 치유

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서기연 지체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한다. 소망한다. 연초 2명만 남게 된 중앙위원단은 함께 사역할 다른 중앙위원들을 모집해야 했다. 규약상의 문제와 대표가 없다는 사실도 고려되었지만, 그보다 한 사람에게 과도한 일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에 적임자를 모색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석의찬 형제(건설환경공학 석사), 이은혜 자매(아동가족 17), 그리고 전세일 형제(건설환경공학 20)를 동역자로 보내주셨다. 중앙위원의 인준은 잔여임기(총회로부터 다음 총회까지)가 2개월 이상일 경우 총회가 아닌 대의원 회의에서 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3월 대의원회의에서 중앙위원 인준 절차를 밟았고 세 명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서기연의 연합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 공식적이었던 서기연 대표로서의 섬김을 위해 정명현 형제가 새로 지원하여 임후보하였다. 다만 공식적인 선출 과정은 3월이 아닌 4월에 이루어졌다. 이 또한 서기연 규약과 관련이 있었는데, 규약에 따르면 대표가 공식일 경우 대의원회의에서 대표의 결원 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달 대의원회의에서" 대표를 선출할 것을 규정한다. 2월 총회에서 대표의 결원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이 없었기에, 절차상 3월 대의원회의에서 대표결원을 공포하고 4월 대의원회의에서 선거를 실시해야 했다. 이에 따라 4월 대의원회의에서 정명현 형제의 대표 인준안이 발의되었고 정회원 전원의 동의로 2021년 서기연 대표로 선출되었다. 정명현 형제는 출마사에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제자들을 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올 한 해 서기연을 섬기길 원한다"고 말하며 소망을 밝혔다.

지난 몇 달간 서기연 대표 공석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며 먼저는 서기연 규약을 개정 및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규약에서 해석상의 논란이 되는 지점들을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위원단은 서기연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맡겨주신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서기연 지체들은 서기연을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다. 대표 선출이 안 되어 위태로웠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셨고 지금도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잠언 말씀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잠 19:21)

서기연 중앙위원단

인문대기독인연합 독후감 이벤트

인문대기독인연합(이하 인기연)에서는 비대면 시대의 지속 중, 어떻게 하면 할 수 함께 신앙에 대해 배우고 나눌 수 있을 지 고민해왔습니다. 이에 기독교 신앙 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참여하였고 책을 읽으며 생각해볼 수 있었던 내용과 누렸던 은혜를 인기연 구성원 전부와 나누면서 참 귀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본지 지면에 그 가운데 두 편을 실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존 버니언, <천로역정>

1. 천로역정을 다시 읽고.

10년만에 천로역정을 다시 읽었는데, 옛날에 남겼던 메모 내용을 묵상하며 읽으니 감회가 새로웠다. “주인공 ‘크리스천’처럼 천성(천국)으로 가는 ‘고되지만 옳은 길’을 이 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붙잡아주시고 결코 불려주시길 소망한다”는 고백을 10년 전에 했었다. 그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내가 가는 모든 여정마다 함께해주셨고, 방황할 때마다 상상을 초월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나를 옳은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이번에 천로역정을 다시 읽으면서 최근 묵상한 시편 말씀들이 많이 생각나 더욱 은혜가 되었는데, 묵상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2. 고난이 우리 인생에 가져오는 유익

주인공 크리스천은 천성에 이르기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허영의 시장’, ‘실수의 벼랑’ 등 수많은 역경의 길들을 지나간다. 나 역시 멸망의 도시를 떠나 영원한 구원이 있는 천성(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이기에, 크리스천이 겪은 고난에 공감할 수 있었고, 특히 고난이 인생 가운데 가져오는 유익에 대해 묵상을 하며 책을 읽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시편 119: 67)”라는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고난을 통해 말씀을 배우게 하신다. 크리스천은 천성으로 가는 여정 내내 가슴에 간직한 두루마리를 꺼내보며 힘을 얻는데, 해당 두루마리는 천성에 입성할 수 있는 통행권이자, ‘주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크

리스천이 의심의 성에 갇혀 절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찰나, 그의 동역자 ‘소망’은 두루마리를 읽으며 임마누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자는 제안을 한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성을 탈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인 “약속의 열쇠”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크리스천처럼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겠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 더욱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순금같이 연단되어 쓰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71)

3. 책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부분

책을 읽으며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동역자’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두려움에 떨 때, 그리고 의심의 성에 갇혀 천성으로 가는 여정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의 곁을 지킨 ‘소망’과 ‘믿음’과 같은 동역자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다. 힘든 시기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섭리를 서로에게 상기시켜줄 수 있는 동역자의 존재가 너무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너무 연약하여 미혹되기 쉽고, ‘고되지만 옳은 길’을 이탈할 확률이 높지만, 둘 이상이 함께 모여 서로를 세워주며 격려하면 훨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제한되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인기연 지체들이 더욱 뜨겁게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천로역정을 다시 읽으며, 내가 현재 어디에서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볼 기회를 마련해준 인기연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재현(영어영문학과 18)

로버트 뱅크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이 책은 공동체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동아리 간 사담께서 추천해주셔서 읽게 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갖고있던 가장 큰 질문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모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곳에서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 그 안에서 누군가가 상처 입거나 희생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많은 회의감과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저자는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로마의 시민이자 비기독교인인 푸블리우스라는 인물이 그리스도인 부부의 초청을 받아 한 가정을 방문해 초대교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과정을 푸블리우스의 시점에서 일종의 수기 형태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제 3자의 시선에서 초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에게 어떻게 느껴졌을지가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책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당시 로마의 일반적인 관습과 원리를 떠나 주님 안에서 종과 주인이 함께 식탁에 자리하고, 가장 나중된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누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교회의 본질은 어떠한 제도나 의례의식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있는게 아닌가 싶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교회의 예식이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다만 외면적인 형식보다 그것을 행하는 이들의 내면과 그 가운데에서 작동하는 주님의 원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뜻이죠.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참 어려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보니, 이 책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의 저 모습이 많이 부럽기도 하고 괜히 몽클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나이, 성별, 신분을 떠나 서로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하고, 경청하고, 주 안에 하나 된 자들로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고 저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의 공동체들과 교회들을 놓고도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의 많은 기독교인 지체분들께도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하은(서양사학과 18)

기향기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항공 기도모임, 줄여서 기향기모의 대표를 맡고 있는 기계18 최민호입니다. 저는 이번 글을 통해 지금까지 기향기모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기향기모를 세우며 제가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고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늘 기향기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저이기에, 이렇게 기향기모와 관련하여 솔직하게 글을 쓰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이번 글이 학과 기독교인 모임을 세워나가는 형제자매들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공감과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저 스스로가 다시금 기향기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글을 씁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기향기모를 조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기향기모는 기계공학부와 우주항공공학부, 더 나아가서는 윙공대의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함께 기도하고 실제 행동들을 취하기 위해서 세워진 모임입니다. 또한 기향기모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모임입니다. 한 학년 내 그리스도인 학생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은혜로 함께 시작하게 된 성경 공부 모임은, 은혜로 코람데오(학생공 기도모임) 대표님의 께어 있는 권면으로 다른 학년의 그리스도인 학우들에게도 개방된 모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거쳐 기향기모는 지금과 같은 목표가 정립되었고, 은혜로 지도 교수님의 적극적인 지원까지 더해져서 본격적으로 지금과 같은 형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기향기모는 기계공학부와 우주항공공학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학우들에게 간식과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는 일을 매 학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은혜로 캠퍼스 내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도 지원해 주셔서 한 달에 한 번 작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향기모의 과정을 되돌아볼 때면, 저는 모임의 대표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이 더 큼니다. 열정을 가지고 모임에 임한 순간순간은 있었지만, 사실 열정을 가지고 임했던 시간보다 그저 책임감으로 견뎌냈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이러한 상황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기에 자꾸만 열정이 식는 원인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부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학과 기독교인 모임은 남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학과 기독교인 모임의 대표 자리는 열심히 임한다고 해서 누군가 알아주는 자리도 아니고, 무책임하게 임한다고 해서 누군가 인지를 하고 권면이나 책망을 해주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교적 남들의 시선이 더 잘 닿는) 교회와 선교단체 활동도 하고 있는 저에게, 기향기모는 자꾸 무의식적으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곧, 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저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앞섰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인지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에, 이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은 하나님을 향한 흘러넘치는 사랑일 것입니다.

기향기모의 대표 자리를 통해서, 계속하여 당신을 향한 부족한 저의 사랑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당신을 향한 저의 사랑을 가꿔가실 것을 기대해봅니다. 또한 신실하지 못했던 저와는 달리, 신실하게 모임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 편으로는 기계공학부와 우주항공공학부 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하심은 서울대 내 다른 학과 내 영혼들을 향해서도 동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음을 시원케 하고자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단대기연 대표님들, 과기도 모임 대표님들도 응원합니다! 이러한 저의 솔직한 나눔이 단대기연 대표님들과, 과기도 모임 대표님들 가운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다른 대표님들께서 생각해보신 대안도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마음 편히 연락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남겨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기계공학부와 우주항공공학부의 학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향기모도 이 과정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2. 코로나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향기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하나 됨을 힘써 지키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3. 기향기모의 대표가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다시 열정을 가지고 모임을 섬길 수 있기를.

최민호(기계공학과 18)

특집-대면과 비대면, 비대면 시대 신입생들에게 듣다

학교에서는 2학기 수업을 대면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2021년 2학기도 비대면으로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벌써 3학기나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며 캠퍼스 생활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비대면 상황에 입학한 20학번, 21학번 학우들에게 비대면 시대 및 돌아올 대면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본 특집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에는 지난 1학기 종강 예배에서 찬양팀으로 섬겨주셨던 다섯 분의 기독 학우님께서 응해주셨습니다. 응해주신 학우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학번 및 가나다 순)

임예나(기약과 20)
조준서(식물생산과학부 20)
최세운(자유전공학부 20)
김서겸(서양사학과 21)
장영석(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21)



가. 비대면 시대의 학교생활

장동원: 비대면 시대의 입학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임예나: 부푼 꿈을 가득 안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개강이 미뤄지고... 결국에는 학기 전면 비대면이 되어서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개인적으로 '입학식'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 취소되어 입학의 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채로 3월을 맞이했습니다.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한이 있어요.ㅠㅠ

조준서: 입시가 끝나고도 코로나 때문에 놀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식도 취소되어서 대학생이 되었다는 실감이 잘 안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는 것 같았는데, 나름 마음속에 보상심리같이 기대감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 혼자 있게 되고, 그래서 공부도 잘 안되고, 처음 해보는 기숙사 생활까지 겹쳐 많이 우울해졌던 것 같습니다.

장영석: 사실 입학하니까 마냥 좋았어요. ㅎㅎ 해외에서 계속 살다 와서 한국 대학교에 입학했던 거 자체가 대면과 비대면을 떠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서겸: 대학 가기 전에는 캠퍼스라이프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들어와 보니 똑같은 비대면 수업만 반복하게 되어서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입학 행사도 없었고 오히려 입학식 시간에 수업하는 걸 보며 '내가 진짜 서울대 왔구나'란 느낌이 들었어요. 본가도 지방에다 사람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채 기숙사에 계속 있다 보니 계속 우울감에 빠진 것 같고, 제대로 된 캠퍼스라이프를 해보지 못해 아쉬웠습니다.ㅠㅠ

최세운: 일단 해외에서 공부하다 서울대에 합격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온 거 같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입학식을 해서 확실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수업도 다 비대면으로 하게 되고... 고등학교에서도 마지막 학년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서 대학에 와서도 똑같은 게 계속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대학에 오면 새로운 경험을 할 줄 알았는데 비대면 상황에서 상상했던 것만큼 대학 생활이 드라마틱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아쉬웠어요.ㅠㅠ

거기다가 가족이 해외에 있다 보니 한국에 집이 없어서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코로나 시기에 기숙사를 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 데 저는 기숙사로 들어간 게 제일 나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기숙사에 떨어지면 자취를 해야 했는데 기숙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동기들을 알고 지낼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점오(2학기 입학 학생의 별칭)로 입학했는데 저처럼 입학한 애들이 많지 않아서 서로 다 알고 지내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다들 기숙사로 갔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그나마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기숙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동원: 비대면 시대 학교 공동체 적응과 교우는 어땠나요?

임예나: 음악대학은 실기위주이다 보니 일주일에 최소 1-2번씩 실기레슨을 위해 학교에 갔었고, 그 덕에 그나마 학교를 누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집에서만 지냈기 때문에, 과동기들이랑은 친해지지 못했습니다.ㅠ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속한 플루트 전공 클래스는 소규모 연주 모임을 자주 가졌어서 꽤나 사람들이랑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끼리의 연주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조준서: 저는 적응을 잘 못 했어요. 6인실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날마다 상시로 입주를 해서 룸메이트들과 교류가 제대로 되지 못했거든요. 4월쯤에는 CCC에 가입했지만, 동아리 모임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 동아리도 교류가 안 됐어요. 다른 모임도 코로나 걱정으로 거의 참여하지 못해서 과 동기들끼리도 얼굴을 몰라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이 허무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서 과 친구들을 최대한 만났고, 그 덕에 종종 만나는 친구가 여럿 생겼어요. CCC 동기들과는 특히 급속도로 친해졌고요. 집합금지 등으로 만나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이번 학기는 그래도 한을 좀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서겸: 저도 상황의 한계로 아쉬움이 컸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계속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어 한 달 간격으로 본가와 서울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때문에 본가에 있을 때는 단톡방에 모임 공지가 올라와도 가지 못해 사람들을 보기 힘들었던 듯합니다.ㅠㅠ 사람도 적은 과인데 이렇게 못 만나니 허탈함이 큰 한 학기였어요.

장영석: 4인실 기숙사를 쓰는데 그 4명끼리만 친해진 것 같습니다. 과 친구들은 많이 만나지 못했는데 교수님과 선배님들이 어떻게든 모이게 도와주셔서 몇 명은 사귄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건 아쉬워요. 그래도 종강예배를 통해 믿음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 인터뷰 같이하는 동기와 선배님들이랑도 만나보고 싶어요! ㅋㅋ

최세운: 한국 생활 적응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한국 학교를 다닌 경험도 없고 한국생활을 오래 해본 적도 없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거였거든요. 대학을 한국에서 다니게 되면 한글로 글을 써야 하는데 그런 걸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컸어요.ㅠㅠ 그래서 오고 나서 몇 주간은 진짜 힘들었어요. 과 전공 중 하나가 어려운 용어를 쓰던 수업이라 따라가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도 있었는데, 중간에 입학하게 되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시작한다는 느낌을 크게 받아서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학번은 2학년인데 수업은 1학년 수업을 듣다 보니 어색했지만 하다 보니 나아졌어요. 처음에는 비대면이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 기간을 준 거 같아서 좋았지만 너무 길어지고 있다 보니 진짜 대학 생활은 언제 할 수 있을까 같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비대면 시대 수업은 어땠나요?

임예나: 온라인이다 보니 긴장감은 물론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전공 과목 이외의 교양과목은 더욱 지루하게 느껴졌던 게 많았어요. 대형 강의실에서 사람들과 북적이며 함께 수업하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요?하는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조준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도 좋게 될 때가 있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려니 졸음과 더 싸워야 했습니다. 수업 형식도 고등학교와 완전히 달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리 중간고사 때쯤 되면 얼굴 보겠다"라고 하셨지만... 막상 얼굴을 볼 날은 점점 멀어지지만 해서 빨리 이 상황이 끝나고 대면으로 수업했으면 좋겠다 생각에 적응이 잘 안 됐어요. 강의를 들으면서도 핸드폰을 힐끔힐끔 보게 되고, 녹강이다 보니 대강하게 돼서 공부에 집중도 잘 안 되더라고요. PPT만 띄워지니 이해도 잘 안 되고, 모르는 걸 질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김서겸: 고3 때도 비대면 수업을 해봐서 익숙했지만 사실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면수업에 비해 동기들과 교수님들랑 소통하는 게 어렵고, 화면을 안 띄워도 되는 수업이면 핸드폰을 자꾸 보게 되는 건 단점이에요. 몇 시간을 계속 화면

만 보는 게 힘들기도 해요. 근데 일찍 일어나 등교할 필요 없이 방에서 듣는 거랑 수강 신청할 때도 시간 고려할 필요 없는 점들이 단점을 상쇄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녹강은 모르는 부분을 계속 돌려볼 수 있어서 편리했어요. 근데 비대면에 너무 익숙해져서 대면수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힘들 것 같습니다.

최세운: 처음에는 비대면 수업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강의실 찾아다니다 지각할 일도 없이 방에서 수업을 들으니가 편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 되니까 뭔가 아쉬움이 커지는 거 같습니다.

장동원: 비대면 시대에서 대학이 고등학교 4학년으로 전락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특히 공감가는 것이 있으셨나요?

조준서: '미개봉 중'이 아주 적합한 표현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중고가 되긴 했지만 '아직 뜯지지는 않았다.', '아직 새 상품이다' 같은 느낌이 공감 가면서도 씁쓸했습니다.

김서겸: 저희는 그러면 '밀린 재고'라고 생각합니다. ㅋㅋㅋ

나. 비대면 시대의 예배

장동원: 비대면 시대,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계시나요?

임예나: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했던 시기에, 저희 가족은 식탁에 모여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 때 마다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드렸던 이전과 비교하면, 긴장감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조준서: 지금은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면서 지내는데, 본가가 멀지 않아서 평소 원래 다니던 교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교회가 대학 부설 교회라 그 대학교의 학생들이 많았고, 청년부도 제 또래보다는 20대 후반기의 형들이 더 많았어요. 조금 있던 제 또래들도 코로나 때문에 점점 빠져나가서 청년부 활동을 하기가 불편해졌어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본가를 매주 찾아가기가 어려워져서 다른 교회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CCC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영석: 중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쭉 다녔어요. 한인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사모님께서 형제들을 소개해 주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김서겸: 사실 많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비대면 기간에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본가(포항)도 서울에서 멀고,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다니다 보니 본가에 있을 때는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서울에 있을 땐 난감해지더라고요.ㅠㅠ 예배를 본가에서 대면으로 자주 드렸다 보니 비대면이 어색하기도 했고요. 서울에 있는 교회를 섬길까도 했지만, 그러려니 코로나와 사람들의 시선 걱정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CCC를 통해서 부족한 걸 채우고 있습니다.

최세운: 제가 원래는 상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하는 온라인 예배를 얼마만큼 같이 드렸어요. 근데 1학기 초쯤에 다른 점오 친구가 괜찮다고 추천을 해준 외국인 교회를 가봤는데 너무 좋아서 학기 초에는 그렇게 몇 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니까 방역 단계가 올라가서 그 교회도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니던 한인교회의 온라인 예배로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장동원: 대학(청년)부 등으로의 편입은 잘 이뤄졌나요?

임예나: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학생부나 청년부의 구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서겸: 현재 CCC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가에서는 청년부에 편입되어 있지만, 사실 지방에는 교회를 다니는 청년을 찾아보기 많이 힘들어요. 본가가 있는 동네가 그래도 지역에서는 큰 동네인데 그런데도 청년부 조직이 제대로 되어있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최세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 부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대신 CCC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비대면 시대의 핵내 기독교인 활동

장동원: 비대면 시대 핵내 기독교인 활동 가운데 참여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장영석: 저는 아직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는 없습니다. 선교단체의 경우 가입하고 싶은데 섬기는 교회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임예나, 조준서, 김서겸: CCC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세운: CCC 공동체 활동과 같은 믿음을 가진 껌오학번(2학기 신입생) 친구들과 단독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인상 깊은 활동이 있었나요?

임예나: 바로 기억나는 두 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학번 신입생 헌신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20학번끼리 만남을 가졌던 날입니다. 20학번 C맨들을 처음으로 대면하는데, 원래부터 알던 사이인 것처럼 편하면서 즐거웠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학기가 종강하고 있었던 온라인 겨울 금식수련회 때였는데요, 2박 3일 동안 zoom으로 수십명이 모여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리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하나님을 어떻게든 찬양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사실은 제가 2018년에 친언니네 CCC 금식수련회에 따라가서 처음으로 (3박 4일) 금식을 했었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답해주신 게 너무 많았어서 이번에도 그 믿음으로 또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장영석: 선교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 이번에 종강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디! ㅎㅎ 개강예배 때 뵈었던 선배님을 통해서 종강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꼭 드리고 싶었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이외에 신앙오티에서도 행사 준비를 열심히 하셨던 선배님들 보며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디.

조준서: CCC에서 진행한 헌신채플 준비하는 과정이 기억에 남습니디. CCC 동기들과 친해질 기회였거든요. 1학기에는 찬양팀 인도자로 섬기기도 했는데 교회를 자주 못가다 보니 많이 못 했던 찬양을 원 없이 해서 기뻐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한 CCC 수련회도 되게 인상 깊게 잘 참여했습니다!

김서겸: 저도 신앙오티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배님들이 꼼꼼하게 준비해주셔서 좋았습니디. CCC 수련회에도 참가했었는데,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선에서 대면으로 여러 활동이 가능했던 점 때문에 재밌었어요. 미션 수행도 했고, 4인으로 모인 팀끼리 여러 진술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습니디! ^^

최세운: 종강예배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종강예배 말고는 CCC 처음 들어왔을 때 20학번끼리 하는 채플에 참여했던 게 있었어요. 얼떨결에 다른 20학번 친구들과끼리 하는 채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경험이 정말 좋았어요. 코로나 시기가 막대로 모이지도 못하는데 20학번 친구들을 만나며 CCC 공동체가 어떤 느낌인지도 알았고 이 공동체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장동원: 종강예배 찬양팀으로 섬기시면서 느끼셨던 바를 공유해주세요.

임예나: 찬양팀으로 섬긴다고 하기는 했는데, 기말고사 기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찬양연습 모임이 부담이 되기 시작해서 '괜히 신청했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종강예배 당일에 시험이 연속으로 3개가 잡히게 되었고요. 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전에는 꼭 어둠이 찾아와 불평 불만이 가득하게 만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럴수록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만 집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당일 아침부터 있던 시험 일정을 무사히 끝내게 하셨고, 5시부터 시작된 예배 리허설부터 본 예배 시간까지 활기찬 에너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라이브로 송출되는 예배에 피해를 끼치면 어쩌나 걱정도 많았습니디. 처음으로 해보는 연주 구성이기도 하고 멜로디 악기인 제가 실수를 하면 어쩌나, 곡 순서나 멜로디를 바꾼 것들이 완

벽하게 정리되지 않았어서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계속 걱정이 있었습니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순간에 딱 저의 걱정을 거두어가셨고, 가장 온전한 타이밍에 가장 온전한 소리로 싱어분들/피아노/드럼과 조화롭게 소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ㅎㅎ 아주 썩썩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었습니디.

하나님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잠을 꼭 잔듯한 개운한 정신이 되는 것처럼요. 예배를 마친 후 9시였고 집 도착하기까지 2시간이나 걸리는 상황이었는데 어쩌나 썩썩하던지 ㅎㅎ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누린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준서: CCC에서 찬양하면서도 세션을 갖추고 찬양을 한다는 게 오래되었는데, 종강예배에서는 제대로 갖춰 찬양을 올릴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시험 기간 도중에 예배를 드려야 했었는데도 많은 분이 나와 주신 걸 보면서는 은혜도 느꼈어요. 찬양 연습을 할 때도 은혜를 많이 느꼈는데, 연습이라기 보단 하나의 예배와 같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곳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은 거 같아요.

김서겸: 특별한 역할이 없다가 선배님의 제안으로 역할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있던 복잡한 생각들이 어느새 정리되는 느낌을 받아서 좋았습니디. 그리고 예배 한 번을 준비하는 데 안 보이는 손길들이 많았던 걸 보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디!

장영석: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는 동기들과 선배님들을 보며 마음에 힘이 났습니디. 저는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그런 마음이 더 커지고 강해진 것 같습니다.

최세운: 기말고사 기간에 종강예배를 드려야 하다 보니 내가 하고 싶다고 신청한 것을 시간 들어 잘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었지만 공동체와 함께 종강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며 열심히 했는데, 사실 이때 영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종강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위해 찬양도 연습하고, 사람들과 있으면서 기도도 드리다 보니 치유 받는 기분을 많이 느꼈어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 아래 함께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나아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종강예배가 정말 뜻깊었습니다!

라. 대면 시대에 대한 기대, 우려, 제언

장동원: 학교 측에선 2학기 대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있으실텐데요. 일단 어떤 느낌이신가요? 그렇게 느끼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임예나: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방역수칙 최대한 지키며 대면으로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모여있는 것에 익숙해지다 방역수칙에 대해 인일하게 생각할 것 같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조준서: 저는 대면 수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고, 이제는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반아웃'이 온 상황에서 대면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잘 할 수 있을지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입대를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코로나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ㅠ ㅠ

김서겸: 걱정이 들긴 했지만 걱정을 이겨내고 대면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너무 오랜 기간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뉴 노멀'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비대면이 저에게 '노멀'이 되기 전에 진짜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아직 좋지는 않아서 대면 수업은 하더라도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석: 잘 모르겠습니다. 대면 수업 자체는 기대가 되지만 아직 상황이 개선된 게 아니라 걱정이 큼니다. 상황이 나아진다면 기대감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최세운: 일단 처음 딱 발표를 들었을 땐 기대가 컸어요. "뭔가 이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컸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대면으로 한다고는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면을 해도 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진다면 기대될 것 같아요.

대면으로 바뀔 때 가장 기대되는 건 일단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보는 거고요, 선배님들이랑 만나면 학교에 있는 잔디밭에서 돛자리 펴놓고 애들이랑 음식 시켜 먹고 그랬다는 추억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나도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으로 바뀌는데 드는 우려 중 하나는 일단 건강 문제도 있지만, 수업 위주로 볼 때, 줌으로 하는 비대면 수업으로는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이 다 떠서 누가 누군지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다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들을 텐데 그렇게 되면 같이 듣는 사람들의 얼굴을 눈 위로밖에 모를 것 같고 이름도 잘 모르는 상황이 될 거 같다는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길지라서 길을 잘 찾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장동원: 대면 시대가 오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임예나: CCC 동아리방에 인원제한 신경쓰지 않고 많이 모여서 맛있는 것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워터파크, 놀이공원도 너무 가고 싶습니다.

조준서: 대학생이 되면 방학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줄 알았어요. ㅋㅋ 계속 못 나가고 있는 단기선교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 대학생이 아니라면 시간을 낼 수 없는 게 여행과 단기선교인 것 같아서 꼭 해보고 싶습니다.

김서겸: 빨리 거리 두기가 없는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대학생이 되어서 꼭 해보고 싶었던 인도 배낭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ㅎㅎ

최세운: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MT나 OT가 가장 가고 싶습니다! 선배님들이 대학 생활의 꽃이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1학년에 들어와서 그런 걸 해보지 못하는데 되게 아쉬웠어요. 어디 여행을 가보지도 못하고 동기들을 다 만나보지도 못해서... 그리고 껌오 애들 중에서도 기숙사에 안 사는 애들도 있거든요. 얼굴도 모르는 동기가 있기도 한데 다 같이 여행을 간다는 게 의미 있는 거 같아서 그런 걸 가장 해보고 싶어요. 동아리 모임도 하고 싶고..

장동원: 더 좋은 대면 상황을 위해 서기연 및 선교단체들이 20,21학번 새내기들에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까요?

조준서: 선교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크리스천이나 새신자들께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면으로 바뀌게 된다면 학교에 남는 시간도 많아지고, 오프라인 활동도 늘어날 텐데 선교단체가 그런 분들이 신앙을 유지하는데 문제없게 잘 도와줘야 한다(썩썩배 썩썩배)고 봅니다.

김서겸: 후배들을 위한 대면 수업에 필요한 팁이나 정보들을 모아서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석: 서로 만날 기회와 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음이 힘들 때, 같은 크리스천들이 보듬어주고 위로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세운: 음... 일단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서기연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잖아요? 대학 오기 전에 엄마가 "땀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그러셨는데, 진짜 막 힘든 상황에서는 "기도가 뭘 소용이냐", "나를 좀 도와달라" 같은 생각도 들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럴 때 기도가 제 마음에 가장 안정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학번, 21학번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배님들이 학교에 다니시면서 제일 재밌었던 경험,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경험을 가르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나중에 하나하나씩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선배님들이 껌오 후배들에게 한국에 있는 교회를 추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살던 경험이 많이 없어서 어떤 교회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알려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껌오 친구들과끼리 만든 단독방에서도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 여러 교회를 다녀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는데, 방역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해봤습니디. ㅎㅎ

베리타스포럼 고려대 2021 "트랜스휴먼 시대, 인간이란 무엇인가?"



2021년 7월 8일, <트랜스휴먼시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베리타스포럼이 고려대학교에서 실시간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다. 1992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함께 진리를 추구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처음 시작된 베리타스 포럼은 기독교 신앙을 오늘날 우리가 대면해야 하는 세계적인 이슈들, 궁극적 질문들 가운데 위치시킨다. 이를 위해 진리를 추구하는 수많은 다른 사상 및 종교들과 정직하고도 열린 대화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베리타스 포럼의 정신이다. 베리타스 포럼은 현재까지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200개 이상의 대학에서 2,000여 회의 포럼을 진행하였다.

한국에서의 베리타스 포럼은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다. 이번 포럼의 연사는 옥스퍼드 대학의 알리스터 맥그래스 교수였다. 그는 옥스퍼드 분자생물학 박사이자 신학 박사이며, 현재 과학과 종교 분야의 석좌교수로 재직중이다. 대담자로서는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윤리를 가르치는 임성빈 교수가 나섰다. 포럼은 세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먼저는 두 차례에 걸친 사전 북토크를 통해 이미 모은 질문들에 대한 맥그래스 교수의 대답이었고, 다음으로는 맥그래스 교수와 참여자와의 실시간 질의응답, 마지막으로 임성빈 교수와의 대담 및 소동이 이어졌다.

사전 북토크를 통해 선별되어 맥그래스 교수에게 주어진 세 개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Q1. "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큰 질문에 있어서 현대인은 과학적 설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제시하는 인간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유효한가? 더 나아가, 기독교적 설명은 과학적 설명과 공존이 가능한가?"

Q2. "현대과학은 인간의 정신세계나 영혼까지도 설명하려고 한다. 인간의 정신과 영혼은 과연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가?"

이후로는 맥그래스 교수와 참여자들의 실시간 질의응답, 그리고 장로회신학대학교 임성빈 교수와의 대담 및 실시간 소동이 이어졌다. 유튜브 채팅창, 오픈채팅방, 그리고 Zoom 채팅방에는 60개가 넘는 질문들이 내내 쏟아졌다.

Q1. "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큰 질문에 있어서 현대인은 과학적 설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제시하는 인간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유효한가? 더 나아가, 기독교적 설명은 과학적 설명과 공존이 가능한가?"

Q2. "현대과학은 인간의 정신세계나 영혼까지도 설명하려고 한다. 인간의 정신과 영혼은 과연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가?"

이후로는 맥그래스 교수와 참여자들의 실시간 질의응답, 그리고 장로회신학대학교 임성빈 교수와의 대담 및 실시간 소동이 이어졌다. 유튜브 채팅창, 오픈채팅방, 그리고 Zoom 채팅방에는 60개가 넘는 질문들이 내내 쏟아졌다.

이 설명될 수 있는가?"

Q3.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됨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만약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됨을 AI, 로봇, 복제인간이 갖게 된다면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가?"

맥그래스 교수는 위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하면서, 몇 가지 사실을 강조했다. 먼저는 인간은 매우 복잡한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과학적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현대에 과학은 매우 중요하지만, 인생의 큰 질문에 대해 오직 부분적인 설명만 할 수 있으며, 과학이 삶의 의미나 목적과 같은 것들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려할 때 이는 환원주의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과학적 입장에 충실한 주장들과 기독교 진리는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간됨에 대한 기독교의 주장과 과학의 주장은 대립되지 않는다. 기독교는 인간이 물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보다 더 크고 복잡한 존재라고 말한다. 과학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설명하고,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맥그래스 교수는 기독교적 인간관을 강조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죄로 인해 망가졌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길을 잃은 우리를 찾아 본향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당신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면, 인생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다.

이후로는 맥그래스 교수와 참여자들의 실시간 질의응답, 그리고 장로회신학대학교 임성빈 교수와의 대담 및 실시간 소동이 이어졌다. 유튜브 채팅창, 오픈채팅방, 그리고 Zoom 채팅방에는 60개가 넘는 질문들이 내내 쏟아졌다.

'인간이 지닌 인격성과 관계성조차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과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의 산물 아닌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도 삶의 의미와 가치체계를 제시하는데, 기독교와 타종교들의 차이는 무엇이며 이들은 어떻게 상호보완할 수 있는가?', '팬데믹 상황에서 무신론과 기독교인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데, 기독교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트랜스휴머니즘과는 반대 논지를 펼치는 실존주의적 무신론자들에게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트랜스휴머니즘이 지닌 기술적인 이점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등등

질문자들은 대부분 대학생들이었으며 이 가운데는 비기독교인과 무신론자도 상당수였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당면한 중대한 이슈 앞에서 거리낌 없이 묻고 답하는 모습은, '함께 진리를 추구한다'는 베리타스 포럼의 모토를 떠올리게 했다.

이번 베리타스 포럼은 그 정신에 걸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의 현장은 신앙과 비신앙이 세상에 대한 '질문'을 매개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 매개로 인해 또다른 질문과 대화가 생산된 현상이었다. 트랜스휴먼과 인간이라는 주제를 둘러싼 수많은 질문과 대답들을 지켜보며, 비신자와 신자 모두가 같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의 의미를 새삼 되새겨보게 된다.

문득 나의 대학원 생활이 스쳐지나간다. 나와 같은 세상, 캠퍼스, 강의실을 공유했던 선생님들, 그리고 동학들. 나는 늘 비신자들과 함께였다.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그들과 함께했던 연구의 현장에서 나의 신앙은 어떤 의미였는가? 나의 신앙과 이 세계는, 내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었는가? 연결이 되고는 있었는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세계, 그리고 나의 신앙, 그리고 나의 전공은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베리타스 포럼은 분명 이 세 가지가 연결될 수 있으며, 연결되어야만 힘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이었다.

21세기 한국 사회와 캠퍼스에서 기독교성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분명 '세계'와 '학문'과 '신앙'을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리라. 어쩌면 이 셋은 애초에 분리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진리를 이렇듯 연결된 방식으로(그렇기에 낯선 방식으로) 상상하고, 이를 위해 어렵고도 중대한 질문들을 대면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성인에게 맡겨진 숙제이자 책임이 아닐까. 맥그래스 교수는 인간은 세포 덩어리가 아닌,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임을 내내 강조했다. 한명의 신앙인으로서 맥그래스 교수의 지적에 동의하는 바, 우리의 학문이 신앙에 의미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학문에 의미가 있길 소망한다.

21세기 한국 사회와 캠퍼스에서 기독교성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분명 '세계'와 '학문'과 '신앙'을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리라. 어쩌면 이 셋은 애초에 분리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진리를 이렇듯 연결된 방식으로(그렇기에 낯선 방식으로) 상상하고, 이를 위해 어렵고도 중대한 질문들을 대면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성인에게 맡겨진 숙제이자 책임이 아닐까. 맥그래스 교수는 인간은 세포 덩어리가 아닌,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임을 내내 강조했다. 한명의 신앙인으로서 맥그래스 교수의 지적에 동의하는 바, 우리의 학문이 신앙에 의미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학문에 의미가 있길 소망한다.

김재원(인류학과 석사 졸)

기독교 문학, 어떻게 읽어야 할까



기독교와 문학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된 주제이다. 다양한 깊이에서 논의되어왔는데 최근 다시 큰 관심을 얻고 있다. 많은 분이 문학 작품과 이는 개념을 통해 기독교를 이해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기독교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책부터 유튜브 영상까지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 대형 신문사에서는 수 년 전부터 신앙 시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문학 전공자인 필자는 이러한 움직임이 반가우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아직 많은 이들이 "기독교 문학 읽기" 그 자체란 무엇인지 고민을 깊이 있게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기독교 문학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줄거리를 나누어 생각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하고자 한다.

어떤 학문이 성립하기 위해선 그것이 다루는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 근래 기독교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지는 작품들을 통해 그 대상을 특정하자면 "문학 작품 가운데 기독교성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기독교의 한계가 불분명하다. 많은 책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아니라 자신의 정의로움을 뽐내고자 하는 이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위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 정교회의 기독교 교파에 대해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개신교와 카톨릭 등 서방 기독교를 죽은 종교로 여겼다. 그런데도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기독교 작품으로 읽을 것인가? (이는 또 한 명의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그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교회 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현인을 자처했다.)

필자는 이러한 도스토옙스키의 성향에 대해 알아둘 필요는 있으나, 그의 작품이 기독교 문학이 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작가, 모든 이교 신자는 스스로 어떻게 여기든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만들어졌고, 이들의 창작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스토옙스키의 글을 읽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신실한 기독교 신자의 글을 읽고 생각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문학 텍스트는 기독교 문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오판을 막기 위하여 도스토옙스키를 비롯하여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대할 때 그의 믿음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어떤 텍스트든 기독교 문학 읽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제 기독교 문학의 방법이 더욱 중요하다. 필자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질문을 던지며 읽어가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문학을 특정한 관점에서 읽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고등학교와 대학에서의 교육을 통해 우리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구조주의, 여성주의 등 다양한 관점으로 문학을

살펴보는 것에 익숙하다. 그동안 세속의 사상을 놓던 각자의 문학적 렌즈에 우리의 진리인 기독교 신앙을 놓고 문학을 읽는 것, 그게 기독교 문학 읽기가 아닐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질문하며 읽는 것은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예컨대, 존 버니언의 『천로역정』을 많은 이들이 기독교 문학의 정수로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본다. 현대 독자가 읽기에 과학적 혼재조이며 구조와 전개 또한 전형적인 이 작품에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지거나 생각할 거리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저 기독교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이 작품을 읽으며 스스로 돌아본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반성과 명심이 목적이라면 굳이 문학을 이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에게 이미 성경이 있으며 수많은 신앙 서적이 있는데 문학마저 단순한 덕목 나열에 힘써서는 낭비일 뿐이다. 다양한 문학 텍스트를 두고 질문하며, 능동적으로 읽는 것이 기독교 문학 읽기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에는 이런 것이 있겠다: 작품 안에서 기독교적 주제 의식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작가가 기독교인이라면 그의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그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소설 혹은 희곡에서 특정 인물의 행동은 기독교적으로 정당한 행동인가 등. 이처럼 다양한 질문을 만들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읽는다면 『천로역정』이 아닌 책을 읽더라도 그만큼 깊이 있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앞서 언급한 도스토옙스키를 그렇게 읽어보자. 그의 최후의 작품이자 그를 대표하는 장편 소설인 『끼리마조프 씨네 형제들』은 생각할 지점을 끊임없이 제공했던 작품이다. 필자가 만들었던 질문들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시마 장로와 혼자서 수도원 깊은 곳의 암자에 숨은 채 고행으로 정진하는 페라폰트 신부의 신앙 가운데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생전에 많은 존경을 받았던 조시마 장로가 죽은 후 그의 시신에서 악취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간에 삽입된 대심문관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과 공리주의는 어떤 관계인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고 신실하던 알렉세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등이 있었다.

일본의 천주교 작가 엔도 슈사쿠가 쓴 『깊은 강』이라는 소설이 있다. 종교에 거부감을 느끼는 여주인공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 오쓰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양파"라고 부르자고 제안한다. "양파"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지칭함으로써 여주인공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었던 동시에, 오쓰 자신도 신앙에 대해 끊임없이 돌아보게 된다. 우리가 기독교 문학을 읽는 것은 저 "양파"라는 말과 같을 것이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기독교 문학을 한다면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며, 기독교 신앙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문학에 대한 우리 마음의 목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자.

장동원(중어중문학과 19, 학생기자)

서울대학교 문서사역: 1970년대 자료 소개

과거를 기록해 놓은 책들을 보면, 특히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을 보면 어떤 생생함이 느껴진다. 그것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은 이 글을 쓰기 위해 서기연의 과거를 훑어보면서도 확연하게 느껴졌다. 또한 기록을 더듬어 갈 때마다 지금도 그렇게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실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 비몽사몽간의 한밤중의 한기로 인해 정신이 확 드는 것 같은 느낌을 몇 번 가졌었다. - 김정형(물리91), 진리는 나의 빛 제3호 [1995년 4월 10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어떤 글은 분명히 오래 전에 쓰인 글인데 마치 글쓴이가 오늘 살아서 말하는 듯하다(어쩌면 그것이 고전[古典]의 요건일지 모른다). 친구약 성경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또 어떤 면에서는 해 아래 세계와 인간의 본성이 새로운 것이 없다.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자신이 맞닥뜨린 세계와 실존에 대한 반응을 내어놓는다. 그렇게 하나님, 세계, 인간에 대한 진리를 담은 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적실성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슷한 원리로, 성경 자체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때마다 부여하신 은혜를 기록한 글들 역시 오늘 우리에게 역시 주어지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맨 위에서 인용한 진리는 나의 빛(진나빛) 제3호 기사가 1995년에 쓰였음에도 마치 지금의 우리가 과거 캠퍼스 사역 문서를 보는 마음과 같다고 느껴지듯이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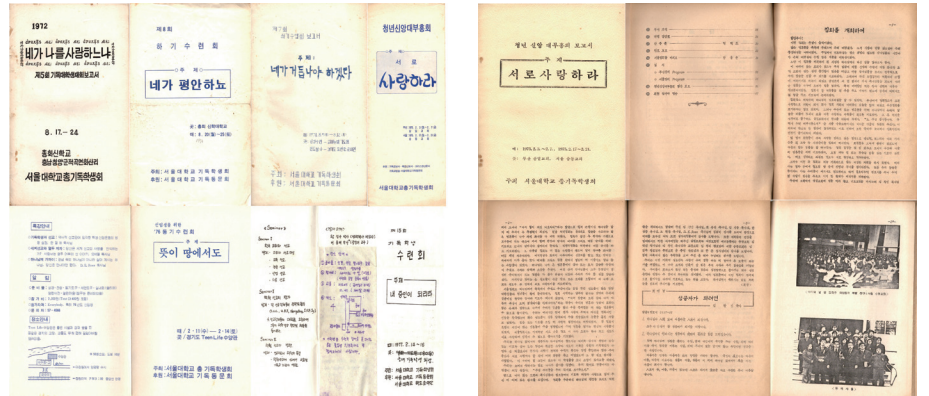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문서사역은 서울대 기독교인들이 캠퍼스 내외의 복음 전도 및 사역 진행을 위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발행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친구약 성경의 수립 과정에서 보듯이 복음 전도 자체는 문서와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며, 서울대학교 캠퍼스 사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서울대학교 문서사역의 역사는 서울대학교 캠퍼스 사역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서울대기독교인연합(서기연)에서 1991년 발간한 「서울대 기독교인 역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에 기독교학생회가 생긴 것은 1946년 「문리대 기독교학생회」가 시초이며, 1965년에는 '서울대 기독교 학생연합회'라는 연합모임이 시작되었고, 1970년에는 '서울대 총기독교학생회'(Students Christian Association: SCA)가 발족하였다. 「서울대 기독교인 역사」에서는 1977년 이후 SCA의 방향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급진화하면서 신학세미나, 신앙강좌, 교양강좌 개최와 함께 회지 발간, 기독교적 보급, 신학자로 발간 등의 문서사역이 이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또 기독교동문의 기증으로 인하여 확보된 몇 가지 문서 자료들은 적어도 70년대 초반부터 서울대 기독교학생 및 기독교동문들이 활발하게 복음 전도를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이므로 전산화된 인쇄기술이 보편화되지 않아 손으로 한 글자씩 눌러쓴 자료들도 상당하다. 이 글에서는 해당 자료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 은혜의 생생함을 나누고자 한다.

(1) 서울대학교 총기독교학생회 주최 수련회 및 부흥회 홍보물 및 보고서 (1972 - 1977)

1970년대 서울대 문서사역 자료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SCA에서 주최한 수련회의 홍보물 및 보고서이다. 특히 보고서에는 초대와 글, 설교 요약문, 간증문, 프로그램 시간표, 예결산 등을 상세하게 수기로 적고 있어 당시의 감동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다. 특별히 1975년에는 SCA의 주최로 서울과 부산에서 대부흥회가 개최되었다. 보고서에서는 "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으나 말씀에 대한 신앙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초대 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함이 없음을 깨닫고 귀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전국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준비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 장소가 구해지고 강사가 초빙되기까지의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 많은 기도와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부산에서는 일반 장년 성도들을 포함하는 전 세대가, 서울에서는 청년들을 위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연인원 12,250명이 집회에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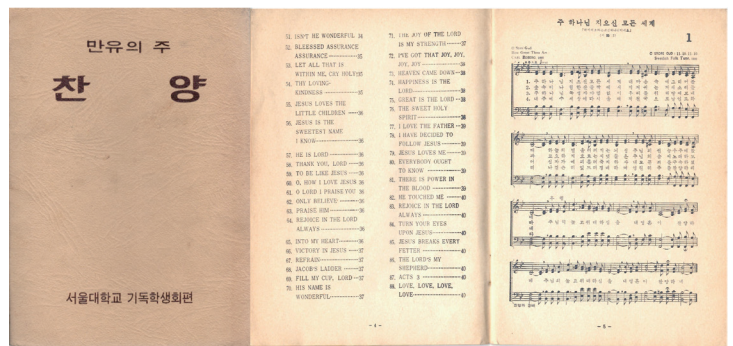
자료에서 확인되는 수련회의 특징을 요약해보자면, (1) 서울대 기독교동문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점(강사로 동문들 참여, 재정 후원), (2) 프로그램 내 '창기학회 비판' 및 '이단 비판' 등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는 점, (3) 당시의 유명 설교자들을 강사로 초빙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형식	기간	주제	장소	강사	인원	활동
제5회 기독교학생대회	1972. 8.17-24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총회신학원 (충남청양군)	신사훈, 어운배, 박운선 등	34	수련회 및 농촌봉사
제8회 하기수련회	1973. 8.20-25	내가 평안하노	총회 신학대학교	Butterfield, 오대원, 신사훈, 한철하 등		수련회
제7회 하기수양회	1974. 8.5-12	내가 거둬야 하겠다	신양수련-임마누엘 기도원 전도봉사-경기도 포천 군내면	신사훈, 탁명환, 박인각 등	25	수련회 및 전도봉사
청년 신앙 대부흥회	1975. 2.3-7(부산) 2.17-21(서울)	서로 사랑하라	부산 삼일교회, 서울 승동교회	김창인, 최동진, 한상동 등	12,250 (부산 6,450, 서울 5,800)	연속 부흥회
신입생을 위한 '76 동기수련회	1976. 2.11-14	뜻이 땅에서도	경기도 Teen Life 수양관	양승달, 한철하, 오대원, 오세철		수련회
제15회 기독교학생 수련회	1977. 2.14-16	내 증인이 되리라	서울공대 기독교학생회관	황성수, 어운배, 손중철		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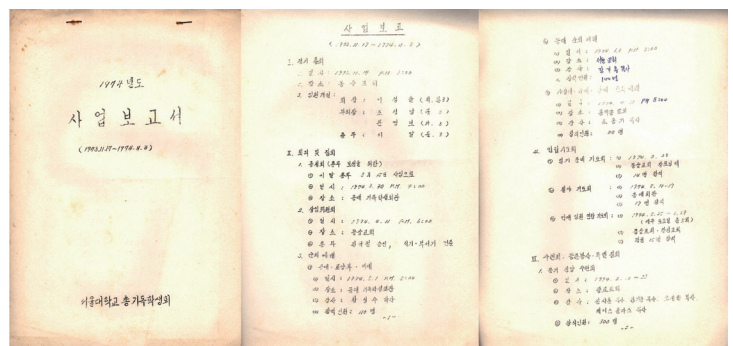
(2) 만유의 주 찬양 (찬송가집) (1974. 2. 15)

「만유의 주 찬양」은 서울대학교 기독교학생회에서 국역 찬송가 39편과 영문 찬송가 88편을 편집하여 출간한 책자이다. 상당수의 찬송가들이 악보 없이 가사들로만 실려 있음이 눈에 띈다. 서울대학교 기독교학생회는 이 책자를 여러 행사들에서 예배 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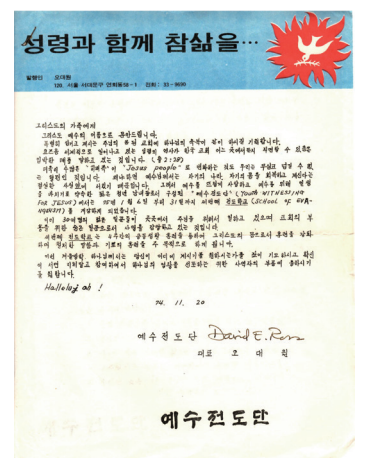
(3) 서울대학교 총기독교학생회 1974년도 사업보고서 (1973. 11. 17 ~ 1974. 11. 8)

본 사업보고서는 1개년도의 서울대학교 총기독교학생회 사업을 보고하고 있다. 정기총회는 1973년 11월 17일에 있었고, 74년도 임기 중에는 공대·교양부·미대(5.1), 농대(6.8), 가정대·사대·상대(10.21) 등에서 각 100여명이 참석한 순회 예배를 드렸다. 연합기도회(2.28, 5.18-19, 5.25-6.29 매주 토요일) 외에도 동기 신앙 수련회(2.18-23), 하기 신앙 수련회(8.5-9), 전도 봉사 및 의료 봉사(8.9-12), 예수 리바이벌(9.23-25) 등을 기록하고 있다. 강사로는 종교학과 신사훈 교수(목사)와 오대원 목사(예수전도단 창립자) 외에도, "프리차드 목사", "펠 쿠올리 목사" 등 외국인 선교사로 추측되는 인물들이 눈에 띈다. 이후 동문과의 모임(4.4-5), 단과대학 기독교학생회 순방(4.22-4.26) 역시 기록하고 있으며, 단과대학 기독교학생회 정기집회 일정을 가정대로부터 시작하여 치대에 이르기까지 11개 단과대학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었다.



(4) 예수전도단 전도학교 홍보지 (1974. 1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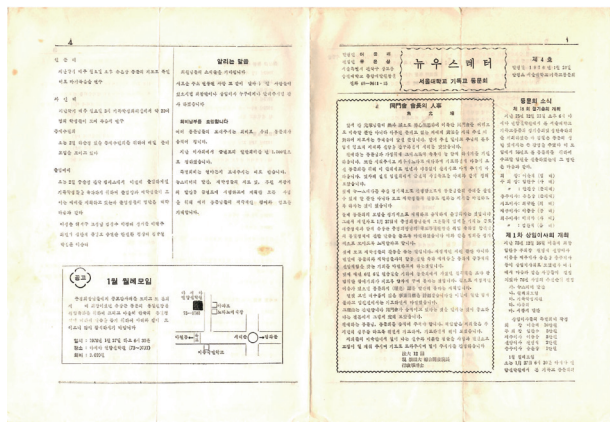
1961년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파송된 오대원 (David E. Ross) 목사는 1972년 서울대학교 공대, 문리대, 농대를 중심으로 예수전도단의 전신인 화요기도모임을 시작하였다. 본 전도학교 홍보지는 "요즘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한국 교회 어느 곳에서든지 직면할 수 있음은 임박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1975년도로 계획된 세 번째 "전도학교(SCHOOL OF EVANGELISM)"를 소개하고 있다. 전도학교는 "4주간의 공동생활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훈련을 강화하며 철저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5) 서울대학교 기독교 동문회지 「曙光」(서광) 제8집 (통권 제17호) (1973. 12.)

「서광」은 1959년 창립한 서울대학교 기독교 동문회가 1964년 발간한 동문회보에서 출발하였다. 제17호에서는 김영훈 동문회장이 권두언에서 “우리 민족을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방관치 마시옵고 바른길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장신대 신대원장 한철하 박사는 ‘신앙의 도약’이라는 칼럼에서 역시 나라와 민족을 여러 번 언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에 있어서의 우리의 새로운 identity의 내용이 우리에게 새로운 一體性(일체성), 사랑의 和合(화합)을 주신다는 사실”에 있다고 하였다. “이 一體性(unity)과 코이노니아, 이것은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유상근, 유상만, 방순동, 유은상 동문의 수필, 그리고 동문회에서 개최한 토론회 소식 등을 실었다. 토론회는 1971년 2월 8일과 1972년 2월 21일에 각각 이루어졌고, 교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토론회 주제는 “오늘의 韓國教會(한국교회)는 어떻게 正義(정의)를 실현”하고 “現實(현실)을 克服(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서광」의 근래 발행본은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 홈페이지(http://www.snuc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서울대학교 기독교 동문회 뉴스레터 제4호 (1976. 1. 20.)

본 '뉴스레터'는 어윤배 동문회장의 인사와 함께 동문회 소식, 상임이사회 소식, 공로패 수여 대상 증경회장단 프로필, 기독교학생소식 등을 전하고 있다. 다수의 동문 인명과 프로필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면부터는 서울대학교 기독교학생 소식을 싣고 있는데, 1975년 11월 22일에 기독교학생회 정기총회를 통해 임원단이 바뀌었다. 이 외에도 경영대, 사회대, 사대, 의대, 인문대, 자연대의 성서연구 모임을 소개하고 있으며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졸업예배 소식 또한 전하고 있다. '뉴스레터'의 기본 형식과 단과대학별 소식 등은 1994년 발간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진리는 나의 빛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살펴본 1970년대 서울대학교 사역 문서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당해 사역을 정리하는 보고서 형식의 문서가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사역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캠퍼스 사역의 경우 그 당사자가 젊음의 한 때를 헌신하는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이전 사역으로부터의 교훈이 지속적으로 전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1991년에 발행된 서울대 기독교인 역사, 그리고 2016년에 발행된 서울대기독교인연합 백서 등은 어느 정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문서들이다. 앞으로도 이렇듯 서울대 기독교인들의 사역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문서들의 대다수가 서울대학교의 관악캠퍼스 종합화(1975-1980)가 완료되기 이전 자료라는 점 또한 생각해볼 수 있다. 캠퍼스 종합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서울대 기독교학생들은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였을 뿐 아니라 연합 활동에도 힘쓰고 있었다. 관악캠퍼스 중심의 종합화가 이루어진 오늘날 상황에서 서울대 기독교학생들의 연합은 물리적으로는 더 수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더 나은 여건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할 것인가를 더욱 깊이 고찰해보아야 한다. 셋째, 서울대 기독교학생들의 시야는 캠퍼스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데까지 닿고 있었으며 모든 이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역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거꾸로, 나라와 민족을 향한 더욱 큰 사명이 캠퍼스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개인의 안위와 행복이 지상(至上)의 가치가 되어버린듯한 오늘날, 서울대 기독교학생들이 품 넓은 비전을 갖는다면 50여년 전의 선배들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요 14:12).

이경건 (편집인, 화학교육 박사수료)

종강예배 스케치



대표기도 장면



방송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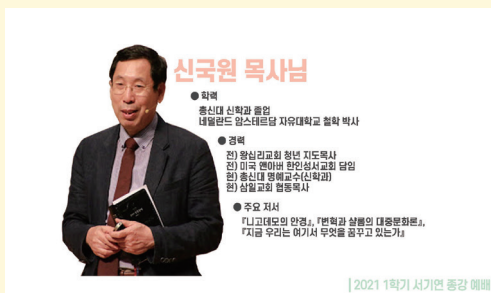
종강예배 포스터



찬양팀 연습



예배팀 전체



신국원 목사님 약력



찬양팀 찬양 장면



설교 장면



종강예배 썸네일



축복송 장면